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참 아름다워라(찬78/새478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경광목 장로 2부/장천경 장로 3부/이준혁 집사 4부/김유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내게 강 같은 평화(Joel Raney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학개(Hag.) 1: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1:1-16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가장 완벽한 집을 가진 사람들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의 부르심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동사목사 칼럼
Pastor's Column

베델이 참 좋습니다

Bethel is Truly Wonderful



황모세 목사 / Rev. Moses Hwang

우리 교회의 이름은 베델교회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선물하신 이 이름을 자주 묵상합니다. 베델(Bethel, בֵּית-אֵל)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따뜻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세 가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창 28:16-19)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왔니?" 하시며 반겨 주실 것 같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맛있는 음식도 차려져 있겠지요. 어린 시절, 언제나 풍성했던 어머니의 식탁처럼 말입니다. 그 식탁이 좋은 이유는 음식보다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입니다.(창 28:13-15; 35:9-12)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면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사진마다 사연이 있어서 몇 장 보다 보면 어느새 그 집안의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눈물과 수고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집에도 그런 사진들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던 날, 울던 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날까지. 모든 사진에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베델은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워지는 곳입니다.(창 35:1-4) 야곱은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건조기에서 막 꺼낸 옷이 생각납니다.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때의 그 소소한 행복 말입니다. 은은한 세제 향기까지 나면 괜히 하루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죄의 얼룩을 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옷을 입는 곳입니다. 얼룩은 우리가 묻혔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베델교회가 그런 집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식탁처럼 따뜻하고, 가족사진처럼 정겹고, 갓 세탁한 옷처럼 기분 좋은 집.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웃고 울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델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실래요?**

Our church's name is Bethel Church. I have been reflecting often on this name that God has gifted to my life. Bethel(בֵּית-אֵל) means 'House of God.' It is such a warm name. Since it is the House of God, what awaits us when we open its doors and step inside? Reading the story of Jacob, I discovered three things.

First, Bethel is the place where God is. (Gen 28:16-19) Jacob met God there and called it the 'House of God.' When I open that door, I feel as though God will welcome me saying, "So, you've arrived?" Delicious food will be set out, enough to make the table bend. Just like my mother's dining table in childhood, which was always abundant. The reason that table is wonderful is not because of the food, but because of the mother waiting for me. In the House of God, there is also God, who is waiting for us.

Second, Bethel is the place that remembers God's promises. (Gen 28:13-15; 35:9-12) God did not forget the promise He gave to Jacob. When you visit someone's house, you tend to look closely at the family photos hanging on the wall. Every photo has a story, so after looking at a few, you end up studying the history of that family. Behind smiling faces, there must have been tears and hard work. I think such photos are hanging in the House of God as well. The days we laughed, the days we cried, the days we fell and got back up. Some photos might tell the story of how we didn't know it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all grace. Every photo will contain the hand of God that faithfully guided us.

Third, Bethel is the place where we return to God and are made new. (Gen 35:1-4) Jacob told his family to throw away their idols, purify themselves, and change their clothes. In this scene, I am reminded of clothes just taken out of the dryer. That small happiness of wearing fluffy, warm clothes. When there is even a subtle fabric softener scent, somehow the day feels even better. The House of God is a place where the stains of sin are washed away, and we put on new clothes by the grace of God. The stains were ours, but the One who makes us clean is God.

I hope that Bethel Church will be that kind of home. A house as warm as a mother's dining table, as familiar and affectionate as family photos, and as feel-good as freshly laundered clothes. I want to worship together here, laugh and cry together, and talk about God's faithfulness for a long time. **Bethel is truly wonderful. Won't you be happy in this house with me for a long, long tim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모세 목사

가장 완벽한 집을 가진 사람들 학개 1:1-9

1.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건축을 미루었다. 1-2절에서 그들이 처음의 목적을 미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도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열심이었다. 2절과 4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을 대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많이 수고해도 부족한 삶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가?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위해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미루었다. 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미루는 신앙의 영역이 있는가? 지금 시간과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나의 집'은 무엇인가?
5.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다(요 2:19-21). 자신의 노력으로 안전을 얻으려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어떤 위로와 변화를 주는가?
6. 학개서 1장 12-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순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 동안 회복하고 싶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 또는 실천하고 싶은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적용하기



인터뷰
동사목사

베델을 통해 만드실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제5대 담임목사로 섬기실 황모세 목사님을 만나 수요일섬여행을 통해 베델교회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자: 먼저 동사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칼럼에서 베델교회에서 첫 주일의 소감을 나눠 주셨는데 한 달여가 지난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황목사: 먼저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 낯선 얼굴들 속에서 낯설지 않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고백은 여전합니다. 다만 낯설었던 얼굴들이 익숙한 이름이 되고, 그 이름들이 삶의 이야기로 이어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의 설렘이 컸다면, 이제는 감사와 거룩한 책임감이 깊어집니다. 지난 한 달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 헌신 속에서 지난 50년 베델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고,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동시에 분명해지는 한 가지 소망은,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베델교회가 역사나 성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베델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을 닮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자: 목사님의 가정에서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인지, 그리고 베델의 믿음의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황목사: 이 질문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답해 줄 것 같습니다.(웃음) 저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하기에 가족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가정은 복음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자리이기에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을 존중

하며,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완벽한 부모를 보여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 성공적인 진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자: 수요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 주제를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라(Kingdom Perspective: Covenant)'로 정하신 이유와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황목사: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는 알지만, 그 이야기들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언약'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의 구원 계획에서 시작하여 여러 언약을 거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는 아름답게 다가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



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자: 목사님의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라는 구호가 베델의 고백이자 유행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드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황목사: 여기에는 베델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오래 함께했다고 반드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베델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곳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는 말씀처럼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면 사랑합니다'는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이 유행어를 넘어 베델의 일상이 되어,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 가는 교회,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갈 베델교회의 아름다운 내일을 목사님과 함께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See 50 특집 16

베델의 여정

물려 받고 물려주는 은혜

1997년 가을 주일, 하바드길을 따라 오면서 베델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어머니와 초등학교 3학년 딸 브리야나와 함께 낯설지만 따뜻했던 베델에서의 첫 주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어느덧 어머니는 9학년 2반이 되셨고, 지금은 제가 은퇴를 앞두는 시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30년의 신앙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얼마나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30년 전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목사님 설교 테이프 사역팀에서 봉사하시겠다고 팀을 이끄시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유권사님께 여쭙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후 테이프 사역팀, 그리고 CD 사역팀, 그리고 현재 USB 사역까지 그 자리를 이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 권사님과 함께하신 그 여정에는 교회 성전 건축 때 매주 만두를 만드시어 헌금하시고, 비전채플과 본당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봉사하신 모습도 저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

사님들 섬김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섬기셨던 어르신들이셨습니다.

BYM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춘기 학생들과의 스토리도 역시 주님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두세 명의 엄마가 된 옛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자기들이 경험한 베델에서의 믿음을 나누어 줄 때면 살아 역사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매주 우리 학생들을 만나며 함께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저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늘 빠른 발걸음으로 교회 뜰을 밟으시던 어머니의 발걸음이 지금은 조금은 천천히 걸으시는 걸음으로 변화했지만 지난 30년의 베델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머니를 지금도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의 본을 저희에게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민 1세의 길을 지나가신 어머니의 여정도, 2세, 3세인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1.5세라는 이름이 붙은 특별한 저희 세대도 주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르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1.5세대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정이 세상에 맞추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Sherry Kim 권사

사역 간증
셀사역

은혜로 얻은 새 삶, 함께 걷는 믿음의 길



할렐루야! 베델교회에 출석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박목사님의 권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셀목자로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와의 소중한 인연은 40년 전 유학생 시절, 손인식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회에서 목사님을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 지금도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마음에 품은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김진수'입니다. 20년 전, 급성 백혈병으로 치료받던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2년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시 50:15)" 말씀이 제게 레마가 되었고, 12년 혈우병을 앓던 여인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제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데 머물렀던 신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깊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저를 놓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제가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제 무화과 4셀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고 아픔을 보듬으며, 삶의 이야기를 편안히 나누는 영적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운동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셀목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20년간 교회를 섬기며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귀 기울이고, 먼저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섬기는 셀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셀의 걸음에도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 가는 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만남과 섬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진수 장로

사역 간증
일어 예배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



베델교회 일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하게도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유학생 시절을 보내고, 결혼 후 세 아이와 함께 일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오게 되다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돌 무렵이었을 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응답은 태평양을 건너 베델의 주일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배와 Q&T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드렸던 기도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느낍니다.

베델에 온 지 3년 반쯤 되었을 무렵, 한 집사님의 권유로 일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통역 봉사로서 섬길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절제된 예배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한국인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어 예배팀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어 예배와 교제를 통해 저희가 정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일본 선교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의 일본부는 저희가 섬겼던 일본 교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일어 예배라고 부르지만, 베델 안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작은 개척교회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현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일본인 예배자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영란 집사

교회학교
교사 간증

복음이 다시 내게로

저는 네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째를 달라는 기도예에 풍성한 응답으로 주신 세 명의 늦둥이를 키우며, 막내가 엄마에게서 잠시 떨어져도 괜찮을 시기에 소망부 교사를 시작으로 어와나, 그리고 지금은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도도 준비도 부족한 채 오랜 시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책을 가르치듯 전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실패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제 일상이 흔들렸을 때, 교사라는 직분이 버겁고 자격 미달인 것 같아 내려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전할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분노하는 아들에게 꺼내고 싶었지만 차마 말

하지 못했던, 또 아들의 방향을 고통 속에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하던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폭풍 같았던 그 시간을 헤쳐 나갈 힘을 주었던 것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바디워십(body worship)과 소그룹에서 반복해 들었던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도 이때 경험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자녀로 부르셨고, 오랜 내적 갈등 끝에 결심한 아들을 보며 저는 엄마로서 또 다른 조바심을 느낍니다. 아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았던 자책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제 자녀이기 앞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 말씀

을 전할 기회를 제게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시는 말씀 안에서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만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에게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오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박민정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예수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프리실라레베리아이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밀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멕시코 일일선교

사랑을 행동으로 나누는 멕시코 일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는 11월 7일(토),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주요 사역〉

- 어린이 사역(게임, 찬양, 말씀)
- 의료 사역
- 미용 사역
- 안경 사역
- 노방 전도/찬양 사역
- 건축 사역



이러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료와 미용 사역에 섬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 드립니다.



1.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2. 모든 선교 팀원이 한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기쁨의 열매가 맺히도록
3. 보내는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루 동안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8: ①부-조관휘	②부-이근제	③부-정병철	④부-이유진
	11/15: ①부-조부연	②부-정낙성	③부-조광종	④부-이가현
	11/22: ①부-주용중	②부-이제석	③부-황대경	④부-박창희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월)	11/7: 임병규	11/14: 손세진	11/21: 전민혁	11/28: 전승운
강단꽃(11월)	11/1: 이미옥	11/8: 서은숙, 이선옥, 이성애	11/15: 장석우	11/22: 서은숙, 윤주원, 주정숙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최형국(안과), 간호사-노성애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수요말씀여행이 여섯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안개꽃 같은 장미꽃'이라는 제목으로 모세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4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유치부 및 K-5학년 대상,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믿음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1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믿음 목장 (이형석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1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103차 베델동산 모집** 베델동산을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12월 18일(금)~20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참가자 신청〉



〈봉사자 신청〉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과 한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QR코드로 볼 수 있는 초대 영상을 활용해 주세요!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11월 셀목자 정기모임** 하반기 마지막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셀목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축복과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7일(토) 헬시바 기도회 후, 체육관,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8기 베델기도학교 종강예배** 12주간의 기도학교 훈련 과정을 마치며 종강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수료생들이 교회 구석구석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서 기도의 불씨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베델 그레이스 콰이어 모집** 시니어합창단의 단원(60세 이상)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본당 2층 찬양채플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콰이어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국선 장로 (949)677-3840, 오성애 권사 (909)319-2158.

◆ **예살 연합 수양회 펀드레이징 'Christ >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합수양회를 위해 오늘(1일) 1-3부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수양회 기금 마련을 위해 단호박죽과 유자차를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문의: 11월 6일(금)~8일(주일), Pali Retreat, 강솔로몬 목사 (714)615-1220

◆ **BYM 중고등부와 CIM 겨울 수련회 등록** 각 부서별 QR 코드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12월 21일(월)~23일(수)

수련회 주제:

BYM QARA(6-8학년) 'I Am',

BYM HOLOS(9-12학년) 'With You', CIM(한어 6-12학년) 'Better Together'

등록비: 조기 등록(10월 25일~11월 7일): \$180, 일반 등록(11월 8일~22일): \$200



〈BYM QARA〉



〈BYM HOLOS〉



〈CIM〉

◆ **B2N 2차 모집 마감** B2N 2차 모집을 마감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여권 사본)와 참가비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큐티인 11월호 판매** QTin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교회 사무실 공사 안내** 사무실 레노베이션 공사로 임시 사무실이 유년부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그동안 CIM을 섬겨주신 이성우 목사께서 10월 25일(주일)부로 사임했습니다. CIM에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께서 오늘 부임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김택호 집사님(김성은 성도의 부친, 신광수 성도의 장인)께서 10월 17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송덕 권사님(김종훈 집사의 모친, 권미경 집사의 시모)께서 10월 26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기수 님(김창남 집사의 부친, 인현미 권사의 시부)께서 10월 28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윤경구 집사님(윤아말리아 성도의 부친)께서 10월 29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p>■ AWANA(어와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p>■ 중,고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p>■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p> <p>■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p>	<p>■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p> <p>■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p> <p>■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p> <p>■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p> <p>■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p>	<p>■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p> <p>■ 편집장: 김경자 권사</p> <p>■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p> <p>■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p> <p>■ 번 역: Grace Yi 전도사</p>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Moses Hwang

People Who Have the Most Perfect House

Haggai 1:1–9

- 1.** God brought His people back to Jerusalem after their life in exile and had them rebuild the temple. However, the people delayed construction, saying, "The time has not yet come." According to vs. 1-2, what was the reason they delayed their initial purpose?
- 2.** While delaying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 people were enthusiastic about building their own houses. Why did God contrast 'God's house' and 'their own house' in vs. 2, 4, and 9?
- 3.** God says twice, "Consider your ways," and in verse 6, shows a life of much labor yet lacking provision. What did God want the people to realize?
- 4.** The Israelites lived diligently for their own houses while postponing God's work. Is there an area of your faith that you postpone even while knowing it is important? What is 'my house' where you pour the most time and heart right now?
- 5.** Jesus declared Himself to be the true temple and opened the way for us to come to God through His cross and resurrection (John 2:19-21). What comfort and transformation does this gospel bring to us, who try to gain security through our own efforts?
- 6.** In Haggai 1:12-14, God stirred the hearts of the people to obeyed. Empowered by Christ's grace, what is a place of worship and prayer you want to restore, or a small act of obedience you want to practice during this coming week?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